

“종이팩 따로 버려요?”…분리배출 의무화 앞둔 주민들 ‘깜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내년 1월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부터 자율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남광주 지역 아파트 상당수에서는 여전히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고 있어 주민 홍보와 수거체계 정비에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상 기자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이달부터 자율 시행해 내년 1월 의무화
10곳 중 2곳 혼합 배출…제도 변경 몰라
환경단체 “홍보·분리수거체계 점검 시급”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내년 1월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부터 자율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남 광주 지역 아파트 상당수에서는 여전히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고 있어 주민 홍보와 수거체계 정비에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율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10곳을 둘러본 결과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 배출한 단지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분리배출을 하러 나온 주민들 역시 종이팩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분리배출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구 주민 박모(60대·여)씨는 “우유팩도 종이니까 다른 종이와 같이 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며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면 지금부터 아파트 게시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배출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내년 개편의 핵심은 종이류의 세부 품목으로 분류돼 있던 종이팩을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화장지 등

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안쪽에 플라스틱 등이 코팅돼 있어 일반 종이와 재활용 공정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걸려져 소각·매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는 것은 물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률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리배출 안내에도 종이팩 재활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종이팩 전체 재활용률은 14.1%로, 멸균팩 재활용률은 2.6%에 불과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달 행정예고했다.

분리배출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며,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의무화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부족한 만큼 제도 홍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종이팩은 코팅돼 있어 일반 종이와 재활용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 단계부터 따로 구분해야 한다”며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해야 수거가 수월해지고 재활용률도 높아지는 만큼 주민들의 올바른 배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분리배출한 종이팩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받아 처리할 시설과 수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상 기자

무안공항 참사 로컬라이저 둔덕 추가 수색 착수

19일부터 유해·유류품 찾는다

이달 말까지 작업 마무리 예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 추가 수색이 15일 시작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군 등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굴착기를 투입해 로컬라이저 둔덕 주변 흙을 걷어내는 굴토 작업에 착수했다.

수색 당국은 콘크리트 잔해 옆면이 드러나도록 흙을 파내 붕괴 위험 등을 점검한 뒤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유해·유류품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수색 당국은 콘크리트 둔덕 잔해를 인양한 뒤 하부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차 굴토 작업 결과 인양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우선 인양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유해나 유류품이 발견될 경우 부서진 콘크리트 둔덕과 고정된 둔덕 모두 인양할 계획이다.

앞서 콘크리트 잔해 인양 방법으로는 H빔과 아이 등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옮긴 뒤 하부를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방안이 검토됐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철근 등 일부를 제거해야 해 원형을 온전히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추가 수색은 유가족들이 로컬라이저 둔덕에도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15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서 발견된 기체 잔해 뒤로 굴착기가 주변 흙을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보관 중이던 사고기 잔해에서 미수습 유해가 추가 발견되자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약 5개월간 공항 활주로와 담장 주변 등 공항 안팎 2만1천98㎡를 재수색했다.

지난달 마무리된 재수색에서는 유해 추정물 1천709점이 수습됐으며, 이 가운데 1천609점에 대한 DNA 검사 결과 희생자 141명의 유해가 확인됐다.

그러나 콘크리트 둔덕 잔해와 주변 구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당시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해당 구역에 대한 추가 수색을 요구했으며, 지난 12일 항철위와 둔덕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가 수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경찰, 포스트시즌 암표 거래 집중 단속

신고자 포상금 지급

광주경찰청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과 불법 암표매매 근절을 위해 기아 홈 경기가 펼쳐지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일대에서 집중단속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광주경찰청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합동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들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암표 거래 근절 홍보활동과 함께 현장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동은 암표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2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금액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판매 금액 50배 이하의 50%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 정착과 불법 암표 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암표 거래 의심 게시글에 대해서는 암표 통합 신고 사이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도심서 길 건너던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전남광주 북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북구 오치동 설죽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장소는 30km 속도 제한 구간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도로 상황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별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운전자의 과속 여부,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창용 기자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